

# 연극과 시민문화교실

발제자 류근혜(柳根惠)

상명대학교 조교수

1. 시작하며
2. 한국에서의 시민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1) 유교사상과 주거문화
  - 2) 주거문화의 변화와 놀이
3. 시민연극교실
  - 1) 장애인 연극교실
  - 2) 노년을 위한 연극교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4. 마치며

본 발제는 필자가 시민연극교육 실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1. 시작하며

한국에서 시민문화교실은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극을 비롯하여 음악, 무용, 미술, 사진, 영화, 국악, 민요, 글쓰기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단체까지 확대 시행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전국 초.중.고에 예술인 강사를 파견할 예정이고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도 예술강사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사회전반에 문화적 관점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3대 정책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 을 목표로 문화로 국민행복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의 기조 아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 형태로, 중.고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과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 밖 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보호소, 군부대, 양로원, 노인복지관 등 각 지방자치의 공공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주최가 되면서 커뮤니티 연극이나, 커뮤니티 댄스 등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커뮤니티 예술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의 형태는 기존에 교육방법과 달리 시민은 감상자로서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 수동적인 위치를 뛰어넘어 시민이 직접 공연이나 전시작품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의 효과를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능동적 위치로의 변화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예술교육 수강자의 인터뷰를 통한 결과 개인의 삶의 가치와 자아존중으로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 한국에서의 시민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1) 유교사상과 주거문화

현대사회에서 특히 한국에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동안 한국은 유교사상이 생활에 규범에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가족형태는 대가족 제도로 가족구성원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2대나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한 집에서 생활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가족이 중시되고 남자는 말수가 적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자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인내심을 강요받았고, 하물며 집 안에서도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저의 언니가 마당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목소리가 크다며 언니를 방으로 들여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 왜 언니가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가? 하고 물었고 어머니는 '남들이 들으면 어찌려고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냐, 그건 이웃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전 어머니의 말씀에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래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웃이 들어서 나쁠 것이 없는데 엄마가 그날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보아 온 어머니는 젊은 사람 이상으로 깨이신 분이 셧고, 그 시대에 부모님은 흔히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서는 그런 차별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지역사회활동도 하고 계셔서 다른 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생각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더 좀 더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예의를 중시하는 외할머니의 교육이 어머니에게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삶이었습니다.

## 2) 주거문화의 변화와 놀이

이처럼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던 대가족 제도는 1960년대에 들어 산업화의 물결과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는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동안은 가정에서는 남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였으나 많은 주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성의 위상 변화도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제일 먼저 가족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조부모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며 주거 형태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와 빌라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놀이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고 여름이면 양동이에 물을 담아놓고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깔깔대며 좋아라 하고 놀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는 이웃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동네에 경사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자리에 모여 축하와 토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낮에는 친구들과 동네 골목 골목을 누비며 놀다가, 밤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무릎에 누워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와 주거문화가 변화하면서 마당과 골목문화는 사라지고, 전국이 거의 똑같은 규격화 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장하고 어른이 됩니다. 산업화에 매진한 결과 경제는 발전되고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진 아파트가 주거 문화의 중심에 놓기에 된 것입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편안함은 주었지만, 이웃과는 오히려 멀어지고 그곳에서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던 자유스러움과 낭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가족의 형태와 주거문화의 변화는 성인들에게는 마실 문화가 사라지고 아이들에게는 놀이 문화에 변화가 온 것 입니다. 이 문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인구문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면 이미 고령 사회로 도달하게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한국인 평균수명은 81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더욱 늘어 날것이고 산업사회에 역군으로 열심히 일에만 매진했던 세대인 60~70대의 장년층이 은퇴 후의 삶을,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의 아픈 역사의 하나인 6.25사변을 겪었고, 유교사상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국가의 고도성장을 위해 개인보다 사

회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여가 문화나 개인의 취미를 위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이제 국가정책과 맞물려 은퇴 후의 삶을 시민문화교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시민연극교실

#### 1) 장애인 연극교실

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장애우들에게 연극을 지도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문화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청소년들에게 연극교육을 진행하던 1990년대는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우를 위한 공공시설 부족으로 그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특수 학교에서의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민간 위탁 시설에서 머물게 됩니다. 주말에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시설로 옵니다. 그들은 시설에서는 오히려 동료들과 원만히 지내는 편이지만 집에 귀가 하면 적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폐아들 경우 뭐든지 자기 생각에 맞춰줘야 하니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6.7세의 아이들처럼 끝없이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과의 수업과정은 일 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 그들의 관심을 서서히 연극에 집중하게 하고 반복연습을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들 역시 수업의 마지막 시기에는 공연을 올렸습니다. 이 공연 발표에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객석에 앉아서 보던 부모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연 후 가장 큰 변화는 부모 형제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은 당사자들에게도 교육의 효과는 있었지만, 그보다도 가족이 장애를 갖은 내 형제나 자식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참가했던 장애우들은 자신감을 얻어 가족이나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독립적인 사고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말이면 집으로 데려가면서도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고 주말 동안 가족 역시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의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28세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장애우가 2년째 연극교실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결혼하는 것과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은 항상 멋을 내어 입었고 늘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단추에 집착해서 저도 목 끝까지 단추를 잠그고 있어야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주말에 집에 다녀오더니 동생의 약혼자가 와서 식구들이 모였는데 옛날과 달리 자기도 불려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에 한여름 내내 그 시설에서 땀 흘리며 함께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며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딱히 누구라는 생각도 없이 튀어나온 말에, 내가 지도하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쁜 화장품가게의 주인이 꿈인 그 장애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는 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장애우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지자체별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우들을 돌봐 줄 누군가가 있어야 부모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부모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민요나 타악기 연주입니다. 그들은 타악기를 연주하며 오랜만에 소리도 치고 크게 웃으며 자식들로 인한 슬픔을 날려 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요와 사물놀이를 지도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2) 노년을 위한 연극교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2008년부터 중·장년층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으로 첫해에 서울시에서 15개 단체에 교육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5년에는 25개 단체가 운영 중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극과 시민문화교실'의 하나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년의 삶을 문화예술을 통해 윤택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교육 시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로 2시간씩입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요청과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 만나서 연습하고 토론을 합니다.

저는 예술 분야 중 연극이 가장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은 시대의 흐름에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그 형태를 달리하며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실을 보여 주는 종합예술입니다. 오늘날 연극은 언어 중심에서 벗어나, 몸의 움직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에서 걷기, 뛰기, 들어 올리기, 던지기 등을 통해 운동의 효과와 신체 에너지의 순환 효과를 유발합니다. 시와 그림 등을 이용해서 시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음악을 이용하여 몸의 리듬감을 찾으며 정신적 젊음을 되찾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극의 특성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연극교육프로그램은 그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처음에는 15개 단체 중의 2단체가 연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나 현재는 25개 단체 중에 13개 단체에서 연극을 활용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연극 중에서도 참가자들의 나이에 맞춰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장르로 악극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프로그램에서 연극 중에서도 대사와 음악, 무용이 포함된 예술형태를 지향하고 60.70대 나이의 장년층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주제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어느 해는 주제에 맞는 작품을 희곡작가에게 의뢰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작품을 선택하여 구성원에게 맞게 수정하여 교재로 사용합니다.

중·장년층 참가자에게 악극이 잘 맞는 것은 한국 하면 대부분 '한'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전 한국인은 흥이 많은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래와 춤이 포함된 극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멋을 지닌 극이 악극이라 생각합니다. 악극은 일본의 공연문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한국 극단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1920~40년대 초까지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온 문화예술인들로 연극인은 주로 축지소극장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악극단체들은 여성극극에 이어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으로 치면 기획자에 속하는 흥행 업자들도 많아 서울 공연이 성공하고 나면 바로 지방 흥행사에서 공연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때 역시 지금과 같이 스타 배우를 보려고 극장 앞에 소녀들이 장사진을 쳤다고 합니다. 특히 임춘영을 비롯하여 김경수, 김진진 같은 배우는 남장 여배우였는데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70대의 어른들이 10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60대 후반의 참가자들은 향수를 달래는 공연이 악극입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는 꾸준히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사를 외우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춰야 하므로 다양한 경험은 축적되지만 연습과 준비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춤과 노래가 있어 연습시간에는 항상 즐거운 웃음이 가득합니다. 의상을 준비하고 서로 협동하여 소품을 만들고 일찍부터 분장도 해 봅니다. 그런 리허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서서히 공연 날짜가 다가오고 처음 무대에 서는 1년 차의 참가자들은 더욱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2년 차의 선배는 옆에서 웃기는 이야기로 후배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지막 무대 리허설은 완전히 연기자가 되어 몰입하게 됩니다. 의상과 분장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공연입니다. 8개월 동안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날이며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와 객석을 채웁니다. 꽃다발을 들고 온 손자가

분장실에 들러 '할머니 공연 축하해요.' 하고 분장한 얼굴에 입맞춤 해줍니다. 그리고는 무대 뒤로 가서 숨죽이고 자신의 등장을 순서를 기다립니다. 무대에 나서는 순간 앞이 하얗고 대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력을 기울인 연습 덕분에 대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전체가 노래를 부릅니다. 목청이 터지어라 하고 소리로 질러 보고, 혹시 나 혼자 음이 틀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옆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니 어느덧 관객 앞에 서서 커튼콜이 이어지고 가족들의 환호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연기를 하길 했나? 생전 처음 경험한 무대 위의 긴장, 배우로서의 황홀감과 두근거림은 다시 절음을 찾게 합니다. 이처럼 연극은 기억력 감퇴를 막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젊음을 되찾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구성원을 보면 대기업 중역으로 은퇴한 사람부터, 전형적인 현모양처까지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참가자 서로 어울리기 힘들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그분들이 살아온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안 가 곧 친구가 되고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활동을 거의 못하고 살다 60세가 넘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부로서 가족의 의, 식, 주를 챙기다 보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가 불가능한 거죠. 모든 것이 가족이 중심이 되었기에 자신을 위한 취미활동이나 한가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60대 주부 차 씨입니다. 그 참가자는 결혼 전에는 9남매의 맏딸로 친정에서도 책임감이 강했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녀들은 키워 외국 유학을 보낼 정도로 자신의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책임이 막중했던 겁니다.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와 남편이 직장 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헌신으로 가정은 평화롭고 안정되니 이웃의 부러움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세가 넘도록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유학을 간 자녀들을 방문하기 위해 외국에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시민문화교실을 알게 되고 3년 동안 참가하면서 자녀를 방문하는 때 외에는 한 번도 결석 없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한 자신의 헌신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받는 것 같다고 기뻐합니다. 필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참가자에게 발견한 것은 연극에 즉, 연기의 재능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습 초반부터 희곡의 등장인물 분석과 감정 표현이 프로배우를 능가하는 감성을 지녔습니다. 저런 감성을 어떻게 누르고 집안에서 주부로서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참가한 교육생들은 그녀가 참고 살아온 시집살이의 경험이 연기를 잘하게 하는 원천이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이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척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엄격한 규율과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극은 우리의 일상을 담아냅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인내심과 순발력 판단력 등이 관객의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참가자 정 씨(70세)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입니다. 이 분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16세 때, 마을에 들어온 유랑극단의 악극을 보고 악극단 단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하고 춤추며 연기를 너무도 하고 싶어서 악극단 단장에게 마을을 떠날 때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자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서 보따리 하나 들고 몰래 담을 넘다가 삼촌한테 들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유랑극단이 마을을 떠나는 날까지 방에 감금되다시피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딸이 집안 망친다고 역정을 내며 문이란 문에는 죄다 지키고 서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 셧습니다. 그 후에도 유랑극단이 마을에 들어오면 식구들 감시가 심해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19세가 되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도시로 시집을 가면 연극을 마음대로 보러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신혼 초 남편은 군인이어서 결혼식만 올리고 부대로 돌아가고 혼자 시부모님과 살게 됐는데

다행히 시아버님은 노랫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노랫소리를 좋아하셨고 혼자 지내는 며느리가 가없어서 극장에 공연이 들어오면 언제나 다녀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날에 내가 직접 무대에 서는 여한이 없지," 그 참가자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가 줄줄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사가 아주 짧은 배역을 맡게 됩니다. 희곡이 모든 배역의 분량이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다 보니 정작,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의 마지막인 공연에서는 대사가 아주 짧은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도 공연 날은 가장 행복해하며 무대 위를 즐깁니다. 이제 그 참가자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자신은 이 프로그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자 참가자 박 씨의 경우 처음에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극에 필요한 춤과 노래를 잘하고 싶어 종일 이것저것 배우느라 하루가 짧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공연하는 날에는 아들은 온종일 객석에서 아버지의 무대 위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 4. 마치며

지금까지 연극교육을 시행하며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시민연극교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감 되살리고 사회성을 익히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년의 삶에 빛이 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참가자들에게서는 자존심을 회복시켜준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공연 후 자손들이 부모님에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달라졌다는 답이 두 번째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젊다는 생각과 공경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 좋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으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게 한다는 답이었습니다.

시민교육프로그램은 각 구청단위로 개설되는데 한 단체당 25~30여 명이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육 이후 반복해서 신청하는 2년 차, 3년 차의 참가자는 자생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예술의 바탕을 이루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론연극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만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공연을 하여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극 창작과정을 익혀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극은 시민문화교실을 통해 아동부터 중·장년층까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의 확산 등 가족의 형태도 더욱 다양화될 것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쇼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소통과 안정입니다. 따라서 연극시민문화교실은 지속해서 확대되어 현대인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演劇と市民文化教室

祥明大學校芸術大学助教授 柳 根恵 Ryu Keun Hye

1. はじめに
2. 韓国における市民文化芸術教室の必要性
  - 1) 儒教思想と住居文化
  - 2) 住居文化の変化と遊びの文化
3. 市民演劇教室
  - 1) 障害者演劇教室
  - 2) 高齢者のための演劇教室〈夢見る青春芸術大学〉
4. おわりに

本発表は発表者が市民演劇教育を行う過程で経験した事を基にしています。

## 1. はじめに

韓国で市民文化教室は文化芸術教育の一環として行われているものであり、その教育内容は演劇を含め、音楽、舞踊、美術、写真、映画、国楽、民謡、作文など多岐の分野に渡っています。2015年現在、首都ソウルを中心に、地方自治団体にまで拡大され実行されています。文化体育観光府の事業計画によると、2017年までに全国の小中高に芸術講師を派遣する予定になっており、また、幼稚園や保育園にも講師の派遣を計画しています。全国の博物館や美術館、文芸会館など、各種の文化施設に芸術講師を派遣することで、社会全般に文化的関心を促すという狙いです。現政府が掲げた3代政策基調の中の一つに「文化の隆盛」があります。「文化で国民の幸せを実現する」、「文化で創造的経済を牽引する」、「文化国家を作る」と言う基調の下、国民が文化に関心を持つよう促し市民文化芸術教育の活性化に力を注いでいます。

文化芸術教育は全国民を対象にしており、小学校では放課後の特別授業と言う形で、中高では放課後の部活動と言う形で行われています。その他、学外施設である青少年修練館や青少年保護所、軍の部隊、老人ホームなど、各地方自治体の公共施

設においても実施されています。地域社会が主体となったことで、コミュニティ演劇やコミュニティダンスなど、「コミュニティ」と言う言葉がよく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には文化芸術教育を通じ、芸術のあり方を「コミュニティ芸術」へと発展させようとする目的があります。現在韓国で行われている市民文化芸術教育の形態は、市民が鑑賞者として芸術家の作品を鑑賞するという受動的立場に留まっていた既存の教育形態に比べ、市民自らが公演や展示作品の創作活動に参加する方法へと変わりつつあります。

芸術教育の効果を統計学的に数値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このような能動的位置への変化は市民の幸福度を高める成果をもたらし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市民文化芸術教育の受講者にインタビューを実施した結果、個人の人生の価値の向上や自己尊重する方向に生活が変化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

## 2. 韓国における市民文化芸術教室の必要性

### 1) 儒教思想と住居文化

現代社会で、特に韓国での市民文化芸術教育の必要性について概観すると以下のようなことが言えます。長い間、韓国は儒教思想が生活規範の中心となってきました。家族の形態は大家族制度であり、親と子が一緒に住む2世代もしくは祖父母から孫まで3世代が一つの家で同居する形でした。したがって、個人よりは家族が重視され男性は無口で忍耐強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されてきました。また、女性は妻として、嫁として耐え忍ぶことを強要され、家の中でも大声を出してはいけないと教育されてきました。私が小さい頃、姉が庭で歌を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その時、母は声大きいといって、部屋に戻りなさいと姉を叱りました。私はそれを不思議に思い、母に「なぜ歌を歌ってはいけないのか」と問うたところ、母は「他の人が聞いたらどうするんだ。それは皆に失礼だ」と答えました。私は長い間母のこの言葉に戸惑いを感じていました。歌を歌うことは悪いことではない。隣人がそれを聞いても大丈夫なはずだ。私はその日の母を何だかおかしいと感じました。私が今までずっと見て来た母は若者以上に現代的思考を持った人だったからです。当時は男女差別が当たり前のようになっていた時代だったにも関わらず、母からそういった差別を受け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でした。また、母は地域社会活動をしていた

ので、私は母が他の人とは違う、新女性だと考えていたからです。そんな母があんなことを言うなんて、私にはまったく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しかし歳を取ってから思い返すと、それは普段礼儀を重視していた祖母の教えが母に影響していたからであったと、今ではそう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それは、昔から伝えられてきた生き方でもあるのです。

## 2) 住居文化の変化と遊びの文化

このように責任と義務を重視してきた大家族制度にも、1960年代における産業化及び働き口を求め移駐した人々による都市部への人口集中によって、変化が生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産業化に伴い経済への関心が高まりました。今までは男が家の家長として家族を扶養していたのですが、多くの主婦が経済活動に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社会での女性の位相にも変化が生じました。社会の変化によって、家族の形態が変化しました。核家族化が進み、祖父母中心から夫婦中心へ、また住居様式も単独住宅からマンションやアパートへと変わりました。

このような変化は、遊び文化にも影響をもたらしました。単独住宅ではどんなに小さな家であっても空を見上げることができる庭がありました。その庭では春には花が咲き、夏には水の溜まった盥(たらい)のなかで子供が水遊びをしました。大人にとって庭は集落の皆が集い言葉を交す場所として、また集落におめでたい事や問題が起きた際の議論の場として使われていました。子供たちは、昼は友達と集落の小路で遊び、夜はお婆さんやお爺さんに膝枕をしてもらい、昔話を聞きなが眠りにつきました。しかし、家族の形態や住居文化の変化に伴い、庭と小路は姿を消しました。子供たちは規格化されたマンションの一角にある公園で成長し、大人になっていきます。産業化の結果、経済は発展し、便利な施設が整ったマンションが住居文化の中心となったのです。マンションは単独住宅とは異なる利便性を与えてくれましたが、集落の細い小路を駆け抜けながら遊んでいた頃の、自由さとロマンは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すなわち、家族形態や住居文化の変化は、大人にとっては集落でのコミュニティー活動に、子供にとっては遊び文化にその変化をもたらしたのです。

韓国も日本と同じく、少子化と高齢化が深刻な社会問題となっています。韓国は

2017年に高齢社会となります。ベビーブームの世代はすでに労働市場から蔑ろにされ始めていますが、その反面、韓国人の平均寿命は81歳にまで延びました。医学の進歩により寿命はこれから更に長くなると予想されている中、産業化を牽引してきた60代・70代の高齢者は引退後の人生を、残った時間をどう活用すべきかに悩まされています。特に彼らは韓国の痛々しい歴史の一つである「朝鮮戦争」を体験した世代であり、儒教思想が社会の規範となっていた中で成長した世代でもあります。成人になってからは国家の高度成長のために、個人より社会を優先する雰囲気の中、前だけを見て走ってきた世代です。従って、彼らには自分の為の時間が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もちろん、余暇や個人の趣味などに自分の時間を使う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な人々が市民文化教室を通じ引退後の人生を新たに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

### 3. 市民演劇教室

#### 1) 障がい者演劇教室

私は1990年代から2000年代に渡り、障がい者を対象に演劇を指導してきました。2008年からは市民文化教室に参加しています。私が障害を持った青少年に演劇教育を行っていた1990年代は障がい者に対する社会的偏見がひどく、また障がい者のための公共施設も不足してした時代だったので、障がい者が健常者と共に生活することはとても混乱でした。障害を持つ子供に対する教育はほとんど特殊学校で行われていました。障害を持つ子供は、大人になったら公共機関の施設や民間委託施設に預けられます。週末だけ家族の元に帰り月曜日になったら再び施設に戻る生活です。彼らは、施設では比較的円満に施設の仲間と過ごすのですが、家庭には馴染めない場合が多く、障がい者を抱える家族皆が苦しんでいました。自閉症を持つ障がい者の場合、何でも本人に合わせてあげないといけないため、兄弟に迷惑をかける場合が多くありました。6歳の子供のようにずっと面倒を見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障がい者との授業と言うものは、一年間の教育を通じて徐々に関心を演劇に向けさせ、集中を促し、同じものを繰り返し練習させるという、とても難しい過程です。

それでも授業の最後には彼らも舞台に立つ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公演は彼らの家族や親戚を招いて行いました。最初は何の期待も持たず、ただ客席に座っていただけだった両親達の目にも涙が浮かび、顔は驚きで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公演後、一番変化したのは、他でもない家族や兄弟でした。もちろん、教育を受けた当事者たちにも教育の成果がありましたが、それ以上に、障害を抱える自分の子や兄弟を見つめる家族の視線に大きい変化があったのです。教育活動に参加した障がい者達は自信を取り戻し、家族や他人に頼る傾向が少なくなりました。独立的思考が養われたのです。家庭内では、障がい者本人が家に帰ることへの抵抗が減り、週末の間彼らの面倒を見なければいけない家族も、彼らとの時間をあまり不快に思わなくなりました。

28歳の自閉症を患っている女性が2年続けて演劇教室に参加しました。彼女の夢は結婚することと、化粧品のお店を経営することでした。彼女はおしゃれが大好きな人で、いつも皆のボタンにこだわり、ボタンを全部留めるないとなかなか授業に集中してくれないので、私も彼女の為に一番上までボタンを留めていました。そんな彼女が家から戻ってきた後、「妹の婚約者が家に来たんだけど、昔とは違って自分もその場に呼んでくれた」と私に自慢をしました。彼女のその言葉に、夏の間共に汗を流し頑張ってきた記憶が、走馬灯のように駆け巡りました。口からふ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言葉がでました。口を衝いた感謝の言葉に、私は「指導をしたのは自分なのに、私はいったい誰にありがとうと思っているのだろう？」と思いました。その感謝の対象は他でもない、きれいな化粧品屋さんが夢の、彼女だったのです。

このように、文化芸術教育は教育を受ける当事者のみならず、彼らの家族そして教育を行う立場であった私の人生にも大きく変化をもたらしました。2000年度以降、障がい者の教育プログラムのみならず障がい者家族のための文化芸術教育プログラムが自治体別に開設されつつあります。しかし、現在は障がい者の面倒を見てくれる人がいないと家族が教育プログラムに参加できない状況です。障がい者家族が好む授業は民謡や打楽器の授業です。彼らは打楽器を演奏しながら、徐々に大きく声を出し、笑うことで、障害を持つ身内による苦痛や悲しみを吹き飛ばすと言います。ゆえに民謡と打楽器を指導する団体が多くなっています。

## 2) 高齢者のための演劇教室〈夢見る青春芸術大学〉

2008年から中・高年者の為の芸術教育プログラムが開設されました。このプログラムは高齢者人口の増加による政策の一つで、最初はソウル市が15の団体に教育プログラムの運営を委託する形で実行されたのですが、今や25の団体までその数が増えました。私は2008年から「演劇と市民文化教室」の一つである〈夢見る青春芸術大学〉という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います。このプログラムはベビーブーム世代を対象にするもので、晩年を、文化芸術を通じ潤して行く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60歳以上のソウル市民が受講することができ、教育期間は4月から11月までの8か月間で、週1回2時間となっています。しかし実際は参加者の要望もあり、きちんとした公演を行うために決まった時間より多くの時間を練習に当てています。

私は芸術分野の中で演劇が一番様々な芸術分野と接している分野であると思います。演劇は時代の流れの中で歴史と文化を反映し、その形を変えながら発展してきました。演劇は急変する社会の中で、我々の人生を表現する総合芸術です。今日の演劇は言語中心であった以前に比べ、体の動きを強調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歩く、走る、持ちあげる、投げるなどの動きを通じて得られる運動の効果は身体エネルギーの循環を促します。詩と絵などを利用することで想像力を刺激し、また音楽を利用することで体のリズム感を養い、精神的若さを取り戻す効果もあります。このような演劇の特性を活用して効果を極大化させることができる市民演劇教育プログラムはソウル市民から高い支持を得ています。

初めの頃は15団体中2団体のみが演劇を基にしたプログラムを運営してしまいましたが、現在は25団体の中13団体で演劇を活用した教育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私は演劇の中でも参加者の年齢に合わせ、郷愁を感じさせ、自分の人生を振り返ることのできるジャンルとして楽劇を選択しプログラムを進めています。例えば、〈夢見る青春芸術大学〉プログラムでは、演劇の中でもセリフと音楽、舞踊が含まれた芸術形態を目指しており、60・70年代の高齢層の共通の話題になりうる主題である「家族」に焦点を置いて劇を構成しています。主題に合わせた作品を戯曲作家に依頼して作ってもらったり、既存の作品を構成員に合わせて編集し、教材として使用することもあります。

韓国の中・高年層に楽劇が良く合う理由は、韓国人が「興(フン)」<sup>1</sup>の文化を持っているからです。韓国と言えば「恨(ハン)」の文化<sup>2</sup>を持っていると言いますが、私は、韓国人は「興(フン)」を持つ国民だと思います。ゆえに韓国人は歌と踊りが含まれた劇を好みます。このような味わいを持っている演劇が楽劇だと思います。楽劇は日本の公演文化とも関係があります。1940年代後半、韓国の劇団に所属していた人の多くは1920年代から40年代初めまで日本で留学していた文化芸術人であり、演者は主に東京の築地小劇場の出身でした。

「女性国劇」<sup>3</sup>に続く韓国の楽劇団体は1950年代半ばから1960年代初めにかけて活発に活動しました。今の企画者に当たる「興行業者」もたくさんおり、ソウルでの公演が成功的に終わるとすぐに地方の興行社から声がかかりました。その時代も今と同じ様にスター俳優を一目見るため、劇場の前に少女らが長蛇の列を作ったそうです。特にイム・チュンヘンやキム・キョンス、キム・ジンジンなどの俳優は男装した女優だったにも関わらず、その人気は荒ましいものであったそうです。これは今の70代の方々が10代だったと時の話です。つまり、60代後半以上の方々のノスタルジーを刺激するのは楽劇だと言えます。よって、私が教育を行っている団体にもどんどん申込み者が増えています。

教育の課程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セリフを覚え、歌を歌い、また踊りも覚えなといけません。様々な経験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利点はありますが、必然的に練習の期間が長くなります。けれど踊りと歌があり、練習の時間はいつも笑い声でいっぱいです。衣装を準備し、協力し合って小道具を作り、事前にお化粧もしてみます。こういったリハーサルの過程を踏んでいるうちにどんどん公演の日が近づいてきます。日にちが近づくにつれ、初めて舞台に立つ1年目の参加者達は緊張気味になります。そうすると2年目の先輩は隣で面白い話をしてあげたりと、後輩の緊張をほぐしてあげます。最後の舞台リハーサルでは、完全に役者となり演技に没頭します。衣装と化粧を終え、やっと公演が始まります。この日は8か月にわたる授業を締めくくる日でもあり、参加者の家族と親族が客席を埋めます。花束を持って

---

1 「興(フン)」面白み、楽しく愉快に感じる事。(訳者注)

2 「恨(ハン)」韓国文化における思考様式の一つで、感情的なしこりや、痛恨、悲哀、無常観などを表す韓国語の概念。(訳者注)

3 1940年代後半から1960年代後半にかけて活動した、女性だけで構成されていた韓国の劇団。男装をするという面では日本の宝塚と似ているが、韓国伝統の歌唱の方式を採用していた所にその特異性がある。(訳者注)

きた孫が楽屋に立ち寄り「おばあちゃん、公演おめでとう。」と化粧した顔に口づけをします。そのあと、参加者は舞台裏へと行き、自分の出番を待ちます。舞台に出た瞬間、目の前が真っ白になりセリフも思い出せません。しかし、総力を注いできた練習のおかげで、自然と口からセリフが出てきます。場面が変わり皆で歌を歌います。喉が裂けそうなくらい声をあげてみたり、もしかして自分一人音程を外しているのではと、周りの空気を読んだりします。気が付くといつの間にかカーテンコールになっていて、家族の歓声でふと我に戻ります。私、何をしていたのだろう。私が本当に演技をしたのかな。生まれて初めて経験した舞台での緊張、そして役者としての高揚感と充実感で再び若さを取り戻します。このように演劇は記憶力の衰えを防ぎ、うつ病を治療し、若さ取り戻す効果があるそうです。

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構成員は大企業の重役から典型的な良妻賢母まで多様です。最初は参加者達がお互い釣り合わないのではと心配しました。プログラムの中で頻繁にお互いの過去の事や人生を話し合う時間を持ちました。そうすると参加者達はすぐに友達になり、お互いを尊重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60歳を過ぎるまで全く社会生活をしなかった人が、このプログラムをきっかけとし社会活動を始めた人もいます。主婦として、家族の衣食住の為に尽くしていると自分のための時間を持つことがなかなかできません。すべてが家族中心になり自分の趣味を持つ余裕がなかったのです。90歳を過ぎた義理の母と同居している60代の主婦チャさんの例です。彼女は9人兄弟の長女として生まれ家族に対する責任感を強く感じていました。結婚した後は義理の母と同居しながら子供を留学させるなど、嫁としての責任を果たしました。長男の嫁として家を仕切り、また旦那の仕事のお客さんもおもてな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家族の為に尽くした人生でした。自分の献身で家も繁栄し、周りから羨ましが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かし、60歳を過ぎるまで自分の為に使った時間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留学している子供に会いに海外に行ったくらいでした。そういったなか、たまたま市民文化教室を知り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から3年、彼女は子供が帰国した時以外、一度も休む事なく、情熱的に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います。これまでの家庭への献身が、このプログラムによって報われ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と喜んでいきます。私がプログラムを進めながらチェさんから発見したものは、演劇への、演技への才能でした。優れた登場人物の分析力や感受性豊かな表現力、プロ顔負けの感性を持ち備

えていました。あの感性をどうやって押し殺して生きてきたのだろうと思いました。ところが他の参加者は、彼女が耐え忍んできた今までの人生が彼女の演技の源と口を揃えて言います。その言葉通りかも知れませんが、演技と言うものは、自由奔放に表現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実は厳格な規律と約束の下で行われるものなのです。こうして演劇は我々の日常を表現します。演者の普通の生活の中での忍耐強さや瞬発力、判断力などが観客にそのまま伝わるのです。

もう一人の参加者であるジョンさん(70歳)は、2008年から今までずっと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きた方で、飲食店を経営しながらも熱心に演劇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います。この方に話を伺うと以下のような話をしてくれました。

「私が16歳の時、村に来た旅一座の楽劇を見て、旅一座の一員になろうと決心しました。歌を歌って、踊って…。演技がしたくて旅一座の座長に、村を出る時、私も一緒に連れてってくれと頼み込みをしました。夜になり、家族が眠っている間に荷物を担いで垣をよじ登っていたところを叔父に見つかってしまったんですよ。それから旅一座が村から去るまで家に閉じ込められました。祖母は孫娘のせいで家族が恥をかくと怒り、私が外に出られないよう皆に門番をさせました。それ以降、旅一座が村に来る時は、家族からの監視が一層ひどくなったので、私はただ演劇を見に行く事だけで満足す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19歳になり結婚話が来た時、私は都会に行ったら思う存分演劇を見に行けると思い結婚を急ぎました。新婚の時、主人は軍人だったので結婚式を挙げてすぐに軍部隊に復帰して。私は主人無しで義理のご両親と同居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義理の父は歌が好きな方だったので、私の歌声も好いてくださいました。また、主人無しに一人で過ごす嫁を可哀想に思い、いつでも演劇を見に行ってもよいと許してくれました。そうだったのに…。今になって自分が舞台上立つ日がくるなんて。もう死んでも悔いはありません。」

彼女が当時の話をすると、今でも新しいエピソードが付きません。しかし、もどかしくも、彼女はいつもセリフの短い配役を担当することになります。戯曲の中のすべての配役に、均一にセリフが振り当て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1年のプログラムの最後の公演ではセリフの短い配役を担当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それでも彼女は公演の日は幸せそうに舞台を楽しみます。彼女は息をしなければ生きていけないように、この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ことで自分は生かされていると話してい

ました。

男性参加者のパクさんは、退職後の暇つぶしになるかと思いきこのプログラムに参加しました。しかし今は、演劇に必要な踊りと歌の上達のため色んな事を学ぶのに没頭していたら、一日が短く感じられると言います。そんなパクさんの公演の日には息子達が駆けつけ、一日中舞台の上の父をカメラに収めています。

#### 4. おわりに

これまで文化芸術教育の必要性と教育課程、またその成果について見てきました。まとめると、市民演劇教室は人間にとって一番大事な存在感を感じさせ、社会性を養う、そして高齢化社会に備え晩年の人生にとって光となりうる教育課程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教育で得られた効果に関するアンケートの結果、参加者からは「自分の自尊心を回復させてくれる」との答えが一番多く、「公演後、自分に対する家族の態度が変わった」と言う答えが二番目に多く得られました。両親がまだ若々しいという考えを持つようになり、尊敬するようになったとのこと。何より親が元気に過ごしているようで良かったとの反応もありました。また、「世代差を感じなかった」などの意見が後に続きました。

市民教育プログラムは各区単位で開設されており、一つの団体に付き25～30人の志望者が〈夢見る青春芸術大学〉に参加しています。初回の参加以降2回、3回と繰り返し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参加者には自発的な演劇サークルを発展させるように指導しています。〈夢見る青春芸術大学〉はコミュニティー芸術の基礎となっています。地域発展のための討論演劇の公演を行ったり、幼稚園児を対象にした演劇を作り、保育園や幼稚園、小学校などで公演したりと社会貢献にも繋がっています。また、このプログラムを通じ、演劇の創作過程を勉強することで小学校での補助教師として活動できるようになるなど、高齢者の雇用拡大にも役立っています。このように演劇は市民文化教室を通じ児童から中・高年層に至るまで良い変化をもたらしているのです。

未来の社会は急激な高齢化や少子化、一人世代の増加など、家族の形態ももっと多様化す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一人で食事を取り、一人で散歩し、一人でショッピングをしながら生きていく人々。彼らが必要とするもの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安定です。演劇市民文化教室はこれからも拡大され、現代人の精神的安定と社会性

を維持する基盤となるべきである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日本語訳 金アリン)